

중국시의 기호학적 분석

李 海 元*

<目 次>

- | | |
|-----------------|-------------------------|
| 1. 기호학적 언어체계 | 3. 로버트 솔즈의 기호학 모델 |
| 2. 로만 야콥슨의 대등원리 | 4. 마켈 라파예르의 기호학적 텍스트 읽기 |
| 1) 구조주의 분석 | 5. 포조시의 기호학적 분석 |
| 2) 대등원리와 중국시 | 6. 결 론 |
| 3) 로만 야콥슨의 교류이론 | |

1. 기호학적 언어체계

미국의 기호학자 피어스 Charles S. Peirce (1839-1914)¹⁾는 모든 우주만물은 기호(記號)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한 신사가 장미 한 송이를 줬을 여인에게 주었을 때 한송이의 장미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 과정은 애정의 표시를 내포하는 하나의 기호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장미꽃을 보통의 장미꽃이라고 여길 때 이 장미꽃은 결코 기호가 될 수 없으며 장미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애정의 표시를 나타낸다고 간주할 때 그것은 하나의 기호가 된다.²⁾

여기에서 장미꽃을 기호학자들은 기표(記票, signifier)라 부르고 애정의 표시는 기의(記意, signifie)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호를 연구하는 기호학(semiology or semiotics)은 쏘쉬르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언

* 고려대학교 조교수 (중국문학)

- 1) 수학 논리학, 언어철학, 물리학사 방면의 학자로서 기호학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단편적이지만 독창성이 뛰어나서 근대 기호학을 성립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의 기호학에 관한 견해는 전집인 *Th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s. I - IV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35)에 흩어져 있다. 피어스의 기호학에 관한 책으로는 *Douglas Greenle, Peirce's Concepts of Sign* (The Hague : Mouton, 1973)이 있다.
- 2) Roland Barthes, *Mythologies*, New York: Hill and Wang, 1972, p.113.

어학에서 유래했다.³⁾ 쓰쉬르는 언어학의 대상에 대한 의문과 언어와 사물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던지면서 언어의 체계는 우리의 관념속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체계 즉 언어의 사회양상인 랑그(langue)와 개별적인 의사소통행위의 실제적인 면으로서의 빠롤(parole)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개별적인 발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의 의미기저에 내재하고 있는 문법이나 말의 규칙과 같은 체계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언어는 사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기호들이다. 기표는 쓰여진 글이나 표현된 말의 소외 형태이며 기의는 말의 뜻이나 개념 즉 사전적 개념의 연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언어의 원리는 단어와 사물사이의 어떤 관련된 결과로서 의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의로 형성된 기호들간의 관련체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며 언어의 체계는 말소리들의 변별과 개념들의 변별이 화합하여 이루어진다. 장미는 재미, 쟁이, 종이 등과 변별되기 때문에 기표와 기의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기의와 제휴가 가능한 것이다.

교통신호체계에 적용하여 기표, 기의와 기호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교통신호에서 빨강은 멈춤을, 황색은 출발대기 또는 멈춤준비를, 녹색은 출발을 각각 지시하게되어 빨강, 황색, 녹색은 기표에 해당되고 멈춤, 멈춤대기, 출발준비, 출발은 기의에 해당된다. 기호에서 이러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임의적 또는 자의적(恣意的, arbitrary)이며 그 사이에는 자연매체가 없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사이의 임의적 관계는 피어스의 기호삼분법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기호를 기호와 대상과의 양자간의 내재관련이 있는 기호와 대상이 일치하는 예를 들면 여자(women)와 남자(men)화장실의 표시에서와 같은 초상(肖像) 혹은 상형(象形, symbol)과 그 양자간의 인과 혹은 인접관계가 있는 예를 들면 불의 기호로 연기를, 비의 기호로 구름에서와 같이 기호와

3) 로만 야콥슨 “기호학의 발전에 대한 소고” 야콥슨·바호젠 외, 주주관 옮김, [러시아 현대비평이론] 민음사, 1993, 339-365쪽. 쓰쉬르의 사회생활안에서의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하나의 과학으로서의 기호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오원교 역, [일반 언어학 강의], 형설 출판사, 1985, 30쪽에 나타나 있음.

대상이 인과적으로 연상시키도록 하는 연상(聯想) 혹은 표기(icon)와 기호와 대상 양자간의 내재관계가 인위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징(symbol)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⁴⁾ 초상 혹은 상형의 배후에는 항상 인습성 혹은 관습의 도움이 있고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초상성과 인습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이들의 생성이 문학에 대한 독자의 인식을 도와준다.

2. 로만 야콥슨의 대등 원리

1) 구조주의 분석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사물간의 유사성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기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호체계와 같은 방식에 관계하고 있는 학문으로 이 기호체계는 의미를 가진 인간 삶속에서의 언어의 문법, 구문법, 음운론적 패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롤랑 바르트의 경우에서처럼 모든 사회적 행위들에도 적용 가능하여 이 사회적 행위들은 기호체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모든 언어의 규칙에는 그 언어의 작용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주의는 인류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내재하는 규약(code)과 규칙(rule)을 찾으려는 과학적인 노력으로 기호학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구조주의와 관련된 정의 즉 대립(oppositions)가능들 혹은 서술 명제의 연속성(sequences of functions or propositions), 구문론 법칙(syntactical rules) 등의 특수한 예들에 내재하는 속성은 작품해석에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구조주의는 빠를을 랑그 속에 즉 말을 언어체계 속에 종속시킴으로써 실제 작품과 작가를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작품의 구조와 미학체계 속에 또는 인간의 보편적인 구조분석에 중점을 둔다. 구조주의의 랑그중심의 연구는 레비 스트로스에서는 이원대립(二元對立, binary op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체계는 조직적인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그물 조직은 로만 야콥슨에 의하면 선택(selection)과 결합(combination)이

4) Sandor Hervey, *Semiotic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p.30-31.

서로 뒤섞이는 속성으로 시적 기능을 설명한다.⁵⁾

구조주의 분석방법 가운데 대등원리(對等原理)의 법칙(principle of equivalence)은 무엇이며 시에서는 어떤 의미를 발생시키는가를 살펴보면 시 속에서의 대등원리를 제안한 야콥슨은 언어 행위에서 사용되는 배열의 두가지 기본 방식 즉 선택과 결합이 있다고 보았다. 만약 '어린 아이'가 메시지의 토픽이라면 화자는 어린이, 아이, 젊은 아이 등 어떤 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현존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는 선택한 것이고, 또 이 화제를 언급하기 위하여 화자는 의미상 동족관계의 동사들---자다, 좋다, 끄덕끄덕 좋다, 낮잠 자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두 낱말은 발화의 고리에서 결합된다. 이때 선택은 등가성, 유사성과 상이성, 동의어와 반의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반면에 결합 즉 전후 배열의 구성은 인접성(contiguity)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시적 기능은 등가의 원칙을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사한다⁶⁾고 야콥슨은 말하면서 선택과 결합에 의해서 시적 기능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선택과 결합이 언어 기호들의 배열에 있어서 두가지 기본 방식이라는 이론은 소쉬르의 언어이론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호의 구조적인 정체는 다른 기호들에 대한 조직적인 대립 즉 다른 기호들과 부분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또 다른 성분에 의해 규정된다. /m/ 과 /n/ 은 둘 다 비음이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m/은 순음이고 /n/은 치음인 점에서는 서로 구분된다. 또한 비음은 폐쇄자음 /p/ , /b/나 마찰음 /f/ , /v/와는 대립된다. 소쉬르의 이론의 기초는 빠롤과 랑그 사이의 구분에 있으며 실제 언어행위에서 개별 기호들은 부분적으로 언어(랑그) 속에서 다른 기호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말(빠롤)의 동일한 범주 내에서의 다른 기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류작용을 한다. /m/을 말하는 것은 /n/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린이'와 '잠을 자다'를 선택할때 '젊은 어린이'와 '좋다'는 선택에서 제외된다. 이어서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 설정위에 야콥슨은 선택은 대등원리의 기초 즉 유사성(similarity)과 상이성

5) 김화영 편역 [프랑스 현대 비평의 이해] 민음사. 1984. 75쪽.

6) 야콥슨-바호젠의, [러시아 현대비평이론] 232쪽.

(contrast)의 관계에서 생성되며 선택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인접성 혹은 연속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적 언어에 있어서 문법적인 구조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시 속에서 불연속적인 요소들은 대등원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관련성을 맺게되는 경우를 중국시에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야콥슨의 이론으로 중국시의 특징을 규명해낼 수 있으며 시 창작 과정의 미학 체계도 밝혀질 것이다.

2) 대등원리와 중국시

이백李白의 [送友人]에서

浮雲遊子意 뜬 구름은 나그네의 뜻이요
落日故人情 석양은 옛 친구의 마음이라

‘뜬구름’(浮雲)과 ‘석양’(落日)은 모두 시적 배경의 일부분들이 되며 동시에 은유적으로는 시인의 내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각행의 병렬된 두 개의 명사 ‘뜬 구름’과 ‘나그네(遊子)’, ‘석양’과 ‘옛 친구’(故人)는 의미론적인 유사성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뜬 구름처럼 나그네는 어디에선가 떠돌아 다니며 친구와의 작별과 서산으로 지는 해는 동일하게 어떠한 상실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 종류의 유사성에 의해서 은유(metaphor)가 생성되며 각행에 두개의 병렬된 명사는 서로 문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이러한 관계로 서로 관련성을 맺게 된다. 야콥슨의 이론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대등원리가 유사성의 관계로 은유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시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번째 행의 ‘故’는 문자적으로는 이미 죽은 친구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상실한 친구와 없어서 버릴 지는 해가 의미론적으로 서로 유사성을 갖게 되며 오랜 친구로 잠시 이별한 친구로 해석한다면 첫째로 지는 해도 내일이면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헤어진 친구도 언젠가는 다시 해후하여 만날 수 있음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며 둘째로 오랜 친구는 시간의 지속 즉 변함없는 우정의 지속과 석양과의 의미에 있어서 대립관계를 맺게 되어 발생

될 수 있다. 이 두 연 사이에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즉 ' 뜬구름'(浮雲), ' 석양'(落日)으로 대표되는 자연에 대한 '나그네'(遊子), '옛 친구'(故人)의 인간과의 상호관계라는 중국시인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철학적 인식체계도 전형적으로 보인다.

두번째의 예로 두보杜甫의 [江漢]이란 시에서

江漢思歸客	양자강과 한수에 고향 생각하는 나그네
乾坤一腐儒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켜는 선비
片雲天共遠	구름 한 조각 하늘과 함께 멀리 떠있고
永夜月同孤	영원히 긴밤 달과 같이 외롭기만 하네
落日心猶壯	석양에 마음 여전히 곳곳하고
秋風病欲蘇	가을 바람에 병이 낫네
古來存老馬	예로부터 늙은 말은 있어 왔으니
不必取長途	더 이상 먼길을 나설 필요 없도다

첫 두 시행은 문법적인 연관 없이 명사들이 병렬되어 있다 앞의 예와는 달리 유사성 대신 상이성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다. '구름 한 조각'(片雲)과 '달'(月)의 왜소함과 '하늘'(天)과 '영원한 밤'(永夜)의 광대함이 서로 대조되어 단순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인간 존재의 왜소함은 우주의 거대함과 대조되고 이러한 대립은 새로운 시적 의미를 발생시키어 왜소함은 '항수병에 걸린 나그네'(思歸客)나 '한 늙은 선비(一腐儒)'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양자강'과 '한수'라는 큰 강과 '하늘'과 '땅'(乾坤)이라는 거대한 우주와 대조되어 나타날 때 그 의미론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시적 효과를 점증시켜 주게 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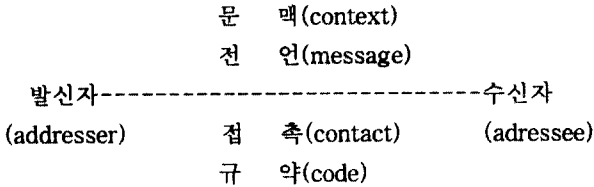
3) 토만 야콥슨의 교류 이론

로만 야콥슨은 '언어학과 시학'⁸⁾이라는 논문 속에서 시적 텍스트의 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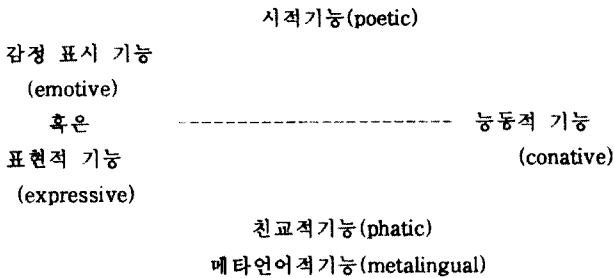
7) 이백과 두보시의 구조분석의 예는 Yu-kung Kao and Tsu-lin Mei, *Meaning, Metaphor, and Allusion in T'ang poetry*, Harvar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38 (1978) pp.289-291에서 인용하여 보완수정 하였음.

8) 야콥슨·바흐젠 외 [러시아 현대비평이론] 225쪽과 232쪽. 김태욱 역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기는 6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교류활동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이 6가지 요소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는 규약을 사용해서 문맥을 가지고 매개체(육성이나 글과 같은 중개물)를 통해서 전달된다. 야콥슨은 각 요소들간의 언어학적 기능을 첨부하여 다음의 도표처럼 도표화했다.



우리가 만일 발신자의 감정이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어의 정서적 기능에 주의를 집중해야하고 문맥에 초점을 둔다면 언어의 정서적 기능을 분리시켜야 하는 등 각각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⁹⁾ 특히 시적 기능의 경우 대등원리를 선택축으로부터 결합축에 투사함으로써 언어지는 시적 효과를 일컫는데 이때의 대등원리란 시적텍스트의 모든 특징을 이루는 음소, 액센트, 운율 등의 음성적인 패턴과 시어나 구문론과 같은 문법적인 구조가 반복되거나 유사한 현상의 표현을 말한다. 그리고 리듬, 음성, 이미지의 유사함을 강조함으로써 시의 형식적인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시의 형식적인 특성이 시학의 기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학과 지성사 1977. 신문수 역 [문학과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9) 박종철 편역 [문학과 기호학] 대방출판사. 1983. 16-19쪽.

3. 로버트 스콜즈의 기호학

기호학이 발신자에 의해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에 관한 활동의 영역이라면 기호시학은 시인에 의해서 독자에게 보내어진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메시지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형식의 체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독자가 시를 읽는 활동이 작자와의 교류 활동이 되며 문학적 상황은 메시지의 형식이 복잡적이고 다중적일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 속에서의 메시지는 보통 다양한 음성학적 효과, 구문론적 아이러니, 다의성, 파라독스 등의 여러 서로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며 그래서 문학적성은 문맥의 이중성으로부터 발생된다. 야콥슨은 메시지의 이중성의 결과가 형식적인 구조임을 강조하지만 로버트 스콜즈의 경우는 시의 형식적 특성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교류의 특성을 복잡하게 하거나 증식하는 과정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시적이란 메시지의 이중성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 파라독스와 다른 문학적 도구들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문맥이나 매체와 같은 다른 이중성에서도 발생된다. 우리는 문학적 텍스트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 unlevel하며 시적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읽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발견하려는 전체 의미는 약호(code)속에 조직되어 있으며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행해지는 교류의 완전한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의 약호를 푸는 것이다. 이것이 왜 시적 해석에는 약호에 대한 연구 즉 기호학이 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스콜즈는 시적 텍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호는 세가지 차원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것은 기호와 해설자 사이의 관련을 연구하는 실제 상황론(pragmatics), 기호와 사물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cs)과 기호와 다른 기호들과의 형식적인 관계를 고찰하는 구문론(synatactic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모리스 Charles Morris의 견해로부터 유래한다.¹⁰⁾ 스

10) Charles C.Morris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in Otto Menrath, Rudolf Carnap & Charles Morris, eds, Foundations of the Unity of Science, V, no.1 : 78 - 13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9)

콜즈의 시 해석의 기호학적 모델의 세 차원은 첫째 수신자와 발신자와의 관계로 일반적인 언술 상황과 같은 시적 요소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연구인 실재론을 둘째 기호의 의미와 다른 기호들과의 계열축(paradigmatic) 관계인 의미론을 그리고 셋째로 시적 텍스트 내의 기호의 결합과 해석을 지배하는 법칙을 구문론으로 이루어진다.¹¹⁾

스콜즈는 구체적으로 그의 이론을 적용하여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William Carlos Williams의 '난타켓트 섬(Nantacket)'이란 시를 분석하고 있다.

Flowers through the window	창을 통해 보이는 꽃들은
lavender and yellow	엷은 자주색과 노란색
changed by white curtains---	흰 커튼으로 색이 바랜---
smell of cleanliness	청결한 냄새
Sunshine of a late afternoon	늦은 오후의 햇빛은
On the grass tray	유리 접시위에
a glass pitcher, the tumbler	유리 물 주전자와 술잔은
turned down, by which	엎어져 있고, 그 옆에는
a key is lying---And the	열쇠 하나 누워있다--- 그리고
immaculate white bed	깨끗한 하얀 침대

이 시의 '난타켓트 섬'은 매사추세츠주의 섬이름이며 이 섬은 고래 박물관과 항구, 해변, 갈매기로 유명하며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가 오랜 장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시인은 시의 제목으로 섬의 이름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문화유산이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으나 시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시 제목이 우리에게 자동연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타켓트섬'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비문법성'(ungrammaticality)이며 영어의 대문자 사용도 불규칙하다.

11) Robert Scholes, *Semiot and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p 48-51.

이 시는 5개의 분리된 복합 문장의 독립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절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마침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댛쉬로 나누어진다. 이 다섯 부분은 주요 동사가 부재해서 보통분장의 문법에 의한다면 이 부분들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여전히 하나의 완전한 시이며 이 시의 바탕은 심상주의(imagism)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어가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시적 상황은 시어의 단서로 보면 우리가 실내에 있음이 분명하다. 꽃들은 밖에 있고 흰 커텐으로 꽃들의 색이 바래 보이고 그것들은 창을 통해서 보인다. 4행의 '청결한 냄새'는 실내의 냄새이고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햇빛은 방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방에는 침대와 유리접시가 있고 커텐이 쳐져 있다. 엮여져 있는 유리 물 주전자와 술잔은 호텔의 객실을 암시한다. 시선의 움직임은 매우 세심하고 주의력 있게 창에서부터 침대로 옮겨가는 시선의 방향과 그 상세한 묘사과정으로 볼 때 친숙하지 않은 방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의 냄새를 평소와 다르게 어느날 갑자기 맡아서 느낄 수가 없다. 결국 열쇠는 그 곳이 빌린 방임을 암시하며 그 방은 난타캣트 섬에 있는 호텔의 방이다. 호텔의 객실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고 필수적인 비품이기 때문에 열쇠, 침대, 유리 물 주전자와 술잔의 결합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제상황을 인식하면서 텍스트로부터 시에 대한 실제론을 구축한다.

둘째 시의 의미구조는 텍스트의 단어와 구의 함축적인 암시를 통해 독자가 얻어낸 어떤 체계를 말하는데 이 시의 첫행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열은 자주색, 노란색과 흰색이 세가지 색깔이며 마지막 행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흰색은 이 세가지 색깔을 지배한다. 흰색은 또한 안정된 의미를 내포하는 '청결'과 '깨끗한'이란 두개의 단어에 관련된 시적 효과와 개념 즉 왕의 의미를 나타내는 왕관과 같은 비유에서의 환유(換喻, metonymy)의 연합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환유적 효과가 시를 이끌고 이것은 미국인에게나 멜빌의 소설 '백경(Moby Dick)'의 독자의 경우 향유고래의 기름과 피를

생각케 하는 난타켓트 섬이 아니라 집에서 머물고 있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평화의 수호를 지키며 생활하는 경건한 기독교집단인 퀘이커(Quaker) 교도부인들의 난타켓트 섬이다. 침대와 열쇠는 평화·비밀스런 사생활 즉 은둔과 비밀을 암시하며 흰색 커튼, 하얀 침대와 유리 물 주전자와 술잔의 흰색이 순수함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시의 함축적이며 의미론적인 구조이다. 멜빌의 ‘백경’ 작품 속에서 이 섬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지어서 퀘이커의 유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객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과정으로서의 열쇠는 사람이 사는 어떤 개인 소유의 성(城)인 신성(神聖)한 장소로 만든다.

셋째로 구문론적 패턴으로 몇 개의 시행에 동일한 구조적 운동이 있다. 그 하나는 색의 이동인데, 비록 파스텔 색깔은 제외되었지만 어두운 색(열은 자주빛)에서부터 노란색으로 다시(부드러워지고 배일에 가려져서) 흰색으로 “바뀐”(changed) 노란색과 열은 자주색으로, 순수한 흰색의 아주 하얀 흰색(마지막 행)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하나는 시선의 이동으로 실외에서부터 창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주시하는 시선의 움직임이다. 실내의 물건들 즉 유리 물 주전자와 술잔으로, 또 다시 방안 표속하고 비밀스러운 실내의 장식품이나 비품 즉 열쇠와 침대로 옮겨간다.

텍스트는 인듯 보기에 실외와 실내의 상세한 묘사들은 대충 수집해서 배열해 놓은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의 세밀한 묘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론적 압시와 시선 이동의 순서에 대한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독자에게 시각적인 세부묘사의 선택과 그것들의 결합을 높은 수준으로 시가 필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마지막 행에서의 ‘깨끗한’(immaculate)이란 시어는 순수함의 암시를 지니고 있으면서 단순한 청결함을 뛰어넘어 시적효과를 체계적으로 전체 시의 맥락과 연결되어 시를 완결짓는데 작용하면서 좀 더 강렬한 의미단계로 접어들게 한다. 즉 ‘흰’색의 반복은 확고하게 색깔체계를 종결짓고 시의 마지막 단어인 ‘침대’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쉬게 해준다.

기호학적으로 실제적, 의론적, 구문론적 규약을 탐구 조사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구축하는데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4. 미카엘 라파페르의 기호학적 읽기

라파페르는 [시의 기호학]에서 “문학 현상은 독자와 텍스트의 변증법적 관계이다.”¹²⁾고 했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에서 텍스트는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하나는 언어학적 관습을 통해 문자 그대로 현실과 관계하거나 메시지를 표현하는 지시성(referential)이고 다른 하나는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간접성(indirection)이다.

독자는 또한 두가지 의미를 추구하면서 텍스트를 읽는다고 라파페르는 설명한다. 시적인 의미로서의 지시적 의미(literal referential meaning), 시는 순수하게 언어요소들을 통해 의미를 제시한다는 모방단계이고 다음 단계는 기호작용의 영역으로 문자적, 지시적 의미로는 은유, 환유와 같은 다른 시적 특성들을 찾아내기 힘들 때 기호와 기호 사이의 비유적 의미(figurative meaning)를 독자가 창출해내야한다고 보고 독자는 모방의 단계에서 기초작용으로서의 이동이 바로 기호학적 진행과정이며, 이 과정은 시 해석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기호학적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두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차적 읽기(initial reading)에서 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를 읽게 되는데 텍스트 내에서의 단어의 선적(linear)흐름에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때 독자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 요구되며 텍스트의 비문법적인 요소를 찾아 내기위해 독자에게 허락된 범칙의 언어조직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자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 독자의 언어는 지시적이라는 모사적 가정을 포함하여 독자는 단어의 상반성(相反性, incompatibility)에 대한 인식능력도 필요하며 텍스트의 단어를 의미론적인 전환 즉 은유,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있음을 가정하고 읽는다.

독자의 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문학능력(literary competence)도 필요한데,

12) 유재천 역, 민음사, 14쪽.

독자는 시가 쓰여진 문화 배경이 되는 철학, 종교, 신화, 주제, 묘사, 문학적 비평적 전통과 친숙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한다. 시 텍스트내의 압축적인 간결한 묘사로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비유들 예를 들면 불완전한 묘사, 전고(典故, allusions), 인용 등은 텍스트 이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차적 읽기로 라파예르는 소급적 읽기(retroactive reading)를 제안하여 이것은 새로운 텍스트 읽기로서 시의 형식적, 의미론적 통합체를 구성하는 읽기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시 속에 숨어있는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독서방법으로 구조적인 규약의 해독작업으로 핵심개념(kernel concept)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일차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문자적 수준(literal level)에서의 이차적 읽기로서의 의미(significance)의 높은 수준으로의 텍스트 읽기과정을 조식曹植의 '칠보시(七步詩)'에 적용하여 분석해보자.

萁在釜下燃	콩대는 솥 밑에서 타고
豆在釜中泣	콩은 솥안에서 탄다
本是同根生	본래 같은 뿌리에서 자랐거늘
相煎何太急	어찌 서로 급하게 끓이는가

언어능력을 가지고 일차적 읽기에서는 3.4행의 단어의 지시에 대한 의미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다. 4행의 “콩은 솥안에서 운다”는 표현은 상반성으로서 문자적 의미로는 불완전하므로 “콩”은 반드시 의미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콩이 의인화되었고 ‘끓는 물소리’는 인간의 울음소리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행에서 독자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누가 “어찌 이렇게 급하게 끓이는가?” 그들이 콩깍질인가? 콩깍질은 무생물인데 그들이 어떻게 갈망하는 생명체가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 “콩깍질이 서로 끓을려고 한다”는 문장은 비문법적이어서 무생물의 문법적 배치로부터 생겨난 문장이 되며 콩깍질은 콩이 끓는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콩이 끓게되면 먼저 콩깍질이 불에 타게 되니 왜 그들은 콩을 끓이려고 갈망하는가? 그러므로

“누구”는 콩깍질이 어떤 문자적으로 지시적인 의미도 만들지 못함을 말해준다.

문학 능력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때 콩과 콩깍질을 조식과 조비曹丕의 유사점과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이라는 은유로서의 적개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世說新語]에서 조비는 조식에게 일곱 걸음을 걷는 사이에 시 한 수를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유명한 고사로부터 독자는 콩과 콩깍질을 조비와 조식과 유사한 두개의 상반극으로 두 형제 사이의 경쟁심으로 인한 적개심의 은유로 취급하게 된다.

2차 읽기에서 독자는 콩과 콩깍질은 기호작용의 전달매체로 간주하여 지시적 의미를 초월한 통합된 은유로 이러한 기호작용을 해석하면 타다(끓이다)는 박해하다로, 뿌리는 부모로, (급하게) 서로 끓이다는 두 형제간의 경쟁심 혹은 정권다툼의 의미로 파악되며 4연에서의 ‘운다’와 마지막 행의 ‘어찌 서로 급하게 끓이는가?’는 시인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항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2차 읽기의 소급적 읽기로 전체 시의 맥락으로 관련지어 볼 때 시인인 조식이 그의 형 조비의 박해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는 핵심개념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5. 포조시의 기호학적 분석

시적 텍스트의 구조분석에 대한 스킵츠의 견해는 독자가 텍스트의 규약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하므로 라파예르의 기호학적 텍스트 읽기로서 보충한다면 중국시 분석 시도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의 인용시는 남조(南朝) 때 시인 포조鮑照의 [玩月城西門廟中]이다.¹³⁾

始出西南樓	처음으로 서남누각에 나오니
纖纖如玉鉤	섬세한 것이 옥고리 같구나
未映東北墀	동북계단을 비추니

13) 錢仲聯 [鮑參軍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80, 392쪽.

娟娟似娥眉	아름다운 것이 누에눈썹 같구나
娥眉蔽珠櫳	누에눈썹은 진주창살을 가리고
玉鉤隔瑣窓	옥고리는 비단 창을
三五二八時	열닷새 여럿달 보름이라
千里與君同	수천리 밖 그대와 함께 있네
夜移衡漢落	밤이 이동하니 북극성과 은하수가 떨어지고
徘徊帷戶中	커튼 친 창에 배회하네
歸華先委露	떨어지는 꽃은 이슬에 시들고
別葉早辭風	잎은 일찌기 바람에 사라졌도다.

비유적 표현의 '옥고리', '누에눈썹'과 유사한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달임을 알수있어서 시적 자아는 달이 되며 이 달은 시적 텍스트의 소급적 읽기로 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의미론적 전환이 발생하게 된다. 4행의 '누에눈썹'은 감각적 이미지로서 아름다운 여인의 은유로 사용되었으며, '옥고리'는 달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고 안과 밖의 양극이라는 두 부분의 연결작용을 창에 의해서 옥고리는 창에 붙어있는 장치로서 창이나 옥고리는 안과 밖을 차단하는 동시에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하다. 그래서 3연에서 누에눈썹과 옥고리로 은유화된 달빛이 님과 헤어진 시인이 홀로 있는 방의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창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달빛은 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을 함축하고 있지만 고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망은 차단된다. 바깥세계로부터 격리된 이러한 상태는 화려한 단어의 '옥', '누에눈썹', '진주', '비단'과 같은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수식어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옥'과 '눈썹'은 달을 은유하는 동시에 여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하며 '진주'와 '비단'은 시적 자아로 하여금 그가 그의 님과 함께 나누었던 방을 연상케 하여, 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구문론으로 다시 시를 분석해본다면

시인

이러한 이론은 기호학과 구조주의라는 두개의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기본 개념에 의존한다. 문학연구에 있어서 구조는 시작품의 구성요소들을 예술적 전체와의 의존관계속에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는 텍스트의 사회적 기능, 독자의 심리나 역사적 기능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지 않으며 독립적이며 내적완성체로서의 시 텍스트의 작품구조와 미학체계를 이루는 조직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시의 기호학적 접근은 문학연구에 있어서 작품해석에 대한 유용한 하나의 방법론이며, 시 텍스트의 구조분석은 언어의 실재론적, 의미론적, 구문론적 차원과 같은 상황관련된 상이한 차원들을 포함한다.